

# 다산포럼

송재소



지난 3월 20일로 이라크 전(戰) 발발 4주년을 맞았다. 2001년 9월 11일 저 끔찍한 테러가 발생한 9일 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구상의 모든 테러 그룹을 찾아 내 저지하고 패퇴시킬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반 후인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공격하여 실제로 전쟁을 수행했다. 이라크 침공의 직접적인 이유는,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의 배후 인물이고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민주주의의 확산’이었다.

전쟁을 개시한 후 4년간 미국은 14만 명의 병력과 5000억 달러의 전비를 이라크에 투입했다. 그동안 미군은 3240명이 사망했고 2만 3924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초에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2006년, 9·11 테러 5주년이 되는 날 부시는 사담 후세인이 9·11 테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침공의 명분

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쟁을 계속했고, 2006년 12월 30일에는 사담을 처형했다. 사담이 처형당한 것은 9·11 테러나 대량 살상무기와는 관련이 없다. 1982년에 있었던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 148명을 학살한 죄를 물어 처형한 것이다. 두자일 학살사건은 응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라크 국내 문제이다. 물론 이라크 법정에서 이라크인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미국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하가 아는 사실이다. 아마 부시는 사담을 처형함으로써 명분 없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이라크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내전(內戰)의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참상의 원인 제공자는 부시이다. 9·11과 무관하고 대량 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부시는 이라크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물러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한 유일한 명분은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즉 사담은 인류의 공적(公敵)이기 때문에 사담이 망

2006년 현재 미국의 해외 파병 병력은 144개국에 46만 명이고 전 세계 군사비의 48%를 미국이 쓴다고 한다.

이만하면 미국이 지구상에서 벌이는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전쟁이다.

미국은 이 전쟁이 악(惡)을 징계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 강변한다. 세계 144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 세계의 경찰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달갑게 여기지 않고 미국인 자체도 반대하고 있다. 9·11 당시 90%에 육박했던 부시의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하락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미국은 이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세계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 시사 주간지 타임의 다음과 같은 9·11 5주년 특집기사가 흥미롭다. “결국 테러와 벌이는 전쟁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 혼자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지난 5년은 가르쳐줬다.” 이라크 전에서 아들을 잃고 부시의 목장 앞에서 일일 시위를 했던 ‘반전 엄마’ 신디 시켄이 “우리는 전쟁기계의 그늘 밑에 있다”고 한 절규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6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은 세계의 경찰인가?

처놓은 이라크를 민주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미국은 어떤가?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그레이브 감옥에서의 소름끼치는 인권침해는 과연 민주적인 처사였는가? 2005년 11월 19일에 있었던 이라크 서부 히다라 마을의 학살도 민주적이었다는가? 미 해병대는 이 마을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세살 난 아기가까지 차별 사살하고 심지어 자식을 품에 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도 사살했다고 한다. 1968년 베트남 미라이 마을의 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 시설

### 한미 FTA 최대 피해 농업 경쟁력 높여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생산은 15년 동안 연평균 6천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업부문 일자리도 1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생산은 현재 평균 6천 698억원 정도 줄어든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의 생산감소가 전체 농업 감소의 70%에 이르러 축산농가의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분석에 나타난 농업 피해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농경원이 제시한 연평균 피해액은 8천700억원이었다.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가장 정확해야 할 피해 추정치 오락가락하는 것은 큰 문제다.

제다. 피해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면 대책도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6월 말까지 수립할 보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피해는 줄어든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소득보조, 전직불 확대, 폐업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FTA 대책은 보상보다는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발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퍼주기식 보다는 현실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대책이 보상품 지급 등 기존 정책을 재타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경쟁력 제고는 고사하고 국내 농업시장이 미국산의 판매처 수준으로 전락 될 게 뻔하다. 정부는 시간에 쫓겨 졸속대책을 내놓아선 안 된다. 정확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운찬 前 총장 대선 불출마 선언의 교훈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돼 왔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포기는 고건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범여권의 대선후보 구도는 다시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게 됐다.

정 전 총장은 “정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끄는 것으로 대선에 출마하려면 정치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치세력과 그 활동 영역이 본 적이 없는 현실에서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고백이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 배경에는 보다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정 전 총장은 범여권 각 정파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러브 콜’을 받아왔다. 본인도 불과 하루 전까지 일부 신문에 “중도 포기는 없다”고 언급할만큼 집착을 보여왔다. 우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지지율 담

보상태를 들 수 있다. 정 전 총장은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혀 왔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자릿수 중반에 머물며 고착돼 왔다. 수 개월동안 지지율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출마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이나 교육, 경제 등 전문가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정치적 벽도 작용했을 것이다. 대선에 나서려면 정책과 비전 이외에도 자금과 조직, 세의 형성은 필수적이다. 뚜렷한 조직이나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정 전 총장도 고건 전 총리처럼 한계를 절감했을 수 있다. 정 전 총장의 결정을 아쉬워하면서도 실망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정 전 총장의 불출마는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 전 총장은 ‘능력과 준비 부족’을 들어 뜻을 접었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국가를 이끌어야 할 자격과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 확신이 안 서면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다.

## 無等鼓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다. 먼저 자산 가치가 전 세계 모든 프로스포츠 팀중 1위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맨유의 자산 가치를 14억5천만달러(한화 1조3천700억원) 정도로 분석했다. 이 금액을 1만원 신권 지폐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산의 1.5배가 넘는다고 한다. 선수와 감독이 최고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최고는 바로 팬이다. 프로팀 중 팬들의 수가 가장 많은데다 열성적이고 맹목적인 추종 성향, 즉 충성도가 단연 으뜸이다. 영국 본토는 물론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 7천500만명에 이른다.

팬들을 떠받치고, 팬을 위해서는 철저히 봉사하는 맨유 정신이 이뤄낸 성과다. 그래서 박지성을 비롯한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모든 힘을 다 토해내고도 경기후 숙소에서 팬들을 위해

밤 새워 100~500장의 사인을 한 뒤 잠자리에 든다.

올 시즌 한국프로야구는 400만 관중을 목표로 내걸고 스탠드의 열거를 지피고 있다.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를 표방한 SK는 팬들의 사인이나 사진촬영 요구를 선수가 거부하면 벌금까지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어떤 팀 선수들은 경기 후 사인을 원하는 관중들을 뿌리친 채 뒤편 버스 타고 떠나버리는가 하면 모 감독은 늘 무미건조하고 권위적인 답변으로 언론을 대하는 등 목불장근식 행보를 하고 있다. 고액의 연봉을 구단주장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맨유의 가 단연 으뜸이다. 영국 본토는 물론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 7천500만명에 이른다.

팬들을 떠받치고, 팬을 위해서는 철저히 봉사하는 맨유 정신이 이뤄낸 성과다. 그래서 박지성을 비롯한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모든 힘을 다 토해내고도 경기후 숙소에서 팬들을 위해

## 프로시장 '갑과 을'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인국내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취재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취재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NGO 칼럼

정수만



‘군부독재의 종식’과 ‘불행했던 과거의 청산’을 통해 우리 사회는 광주학살과 같은 국민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국가폭력 사태는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를 성장시켰다.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군부의 정치개입 또한 다시는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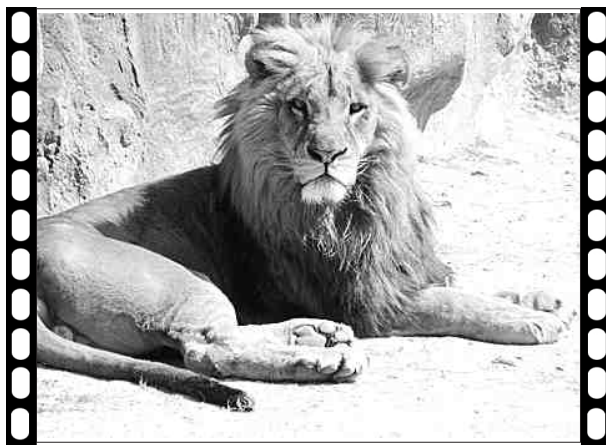
광주가 1980년 5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었고,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한 후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주학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들은 광주학살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우고 지켰지만 전국에서 찾아온 청년, 학생들과 광주시민들은 망월동 5·18 묘역에서 추모제라는 이름으로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향한 투쟁을 결의하고 시내로 나와 투쟁의 대열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지난 했던 세월 끝에 5·18민주화운동은 순서가 뒤를리기는 했지만 관련 피해자의 보상, 관련책임자들의 단죄, 5·18민주화운동유공자에 무병 제정에 이르는 문제해결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동시에 그 문제해결은 우리 사회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외의 선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가 회복된 5·18민주화운동이 지금은 어떤 명예와 자긍심으로

## 동물세계의 텃세와 관용



우리 동물원에 최근 멋진 어른 숫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다. 멋진 갈기, 백수의 왕, 보통 숫사자 하면 이같은 이미지를 상상하고 한다. 우리 동물원의 경우 숫사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암컷 5마리가 있었다.

그래도 암컷과 수컷은 다르지 않은가. 위협스럽게 보이는 숫사자 한 마리라도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이들 무리를 장악할 것으로 짐작했다.

하지만 상상에 불과했다. 암컷 사이에 풀어 놓자마자 이리 저리 쫓기고 도망다니기에 바빠 보였다.

이런 관용은 널리 통용되는 미덕인 것 같다.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두었다. 하루 종일 담담 사육사가 지켜보며 혹시 일어날 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했다. 비싼 돈 들여 들여왔는데 암컷들에게 물려 다치기라도 하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지 않겠나.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암컷들이 다가가 폭풍 건드려도 한 곳에 응크린 채 자자제로 일관했는지 물려 다치기라도 하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지 않겠나.

이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자기도 하고 이제 결혼 의식까지 치르고 있다.

인간 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

## 독자마당

### 인구 늘리려고 '주민등록 이전' 권유 해서야

친구로부터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니 주소를 좀 옮겨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다.

최근 동구 지역의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구도심 인구가 빠져 나가는데다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 증가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 서비스 위축 등을 우려해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인 것 같다.

친구가 부탁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거절

하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소를 옮길 경우 번거로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당장 주소를 옮길 경우 자동차 세금이나 아이 학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부탁을 받고 옮겼다가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어 또다시 옮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주민등록 등본이 4장에 달한다. 제발 이런 일 그만 좀 할 수 없을까.

▲부탁·인터넷독자

###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아나운서 학원서 성형·치아교정 권유 실망

방송 아나운서가 되는게 꿈인데, 얼마 전 실기 학원을 방문했다가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다.

학원에서 내게 성형과 치아교정을 권했다. 여지껏 성형이나 치아교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아나운서가 되려면 그런 걸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몇 곳의 학원을 더 둘러봤더니 방문 학

원들마다 비슷한 소리를 했다.

학원에서 그렇게 권하는 것은 방송사들이 그런 여성을 원하기 때문 아닐까. 성형과 치아교정까지 하려면 수백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야 한다.

진정 돈이 없는 사람은 아나운서라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안효령·목포시 창평동